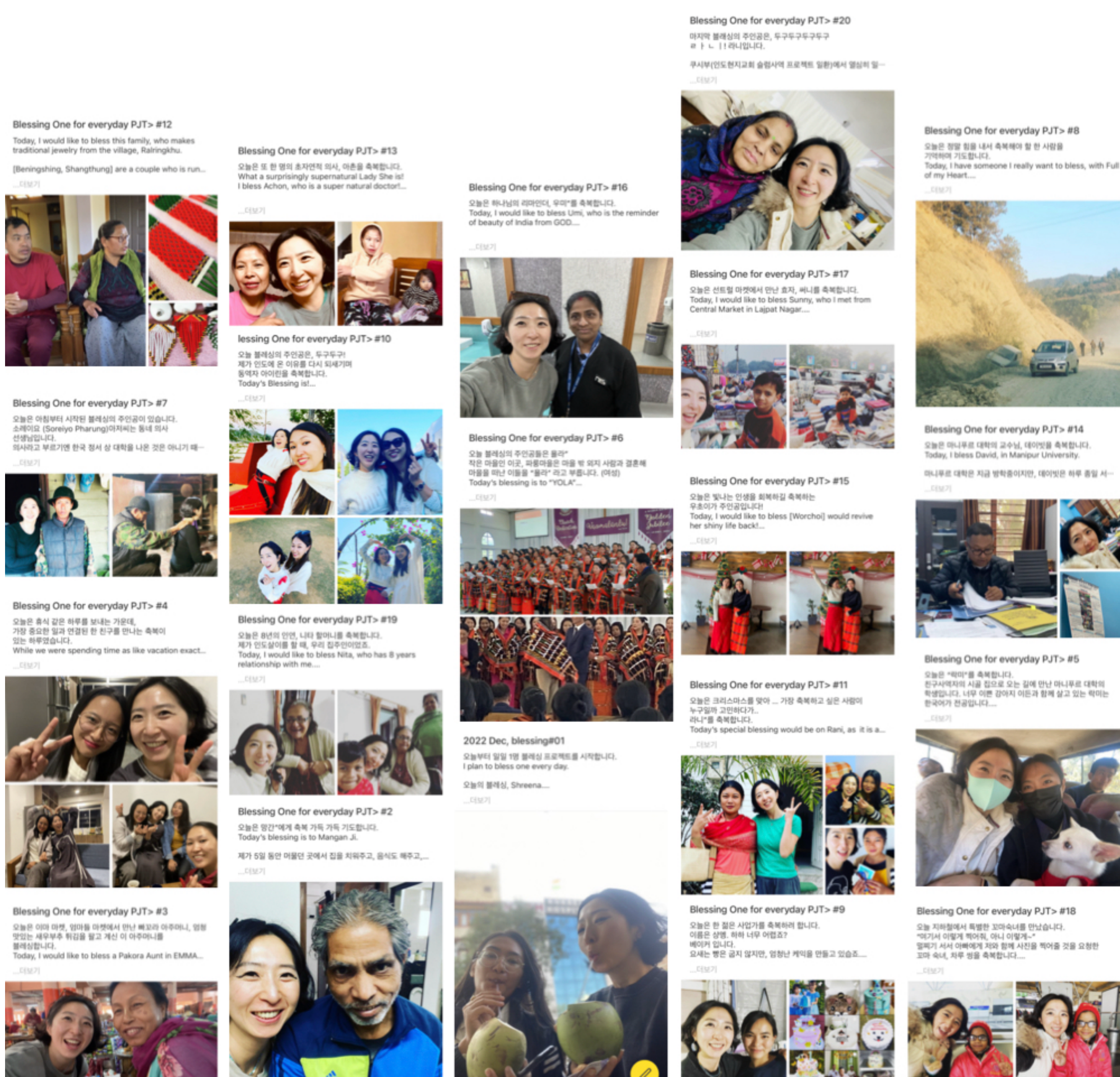




귀한 기도와 감사한 배려로
3여년 만의 인도, 잘 다녀왔습니다.
늘 함께 기도해주시는 중보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주님 주시는 마음 따라 만나게 되는
그 날의 사람을 축복하는
[Blessing Project]를 하였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신
인스타, 페이스북 중보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Blessing Project] 중, 중보자님들께
공유하고 싶은 ‘하나’를 소개합니다.



오늘 블레싱의 주인공들은 올라”
작은 마을인 이곳, 파롱마을은 마을 밖 외지 사람과
결혼해 마을을 떠난 이들을 “올라” 라고 부릅니다. (여성)

파롱 뱀티스트 교회 50주년을 맞아 모든 올라를
초청하였습니다. 교회는 오직 이들이게만 식사를
제공하고, 특별히 마니푸르 전통 술, 이라고 하기엔
패셔너블한 최신 신식 디자인 마니푸르 전통 술을
선물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라들은 오늘,
멋지게 마을의 어른들과 마을 식구들 앞에서
함께 노래하였습니다.
작곡가가 이들만을 위한 노래를 지어주고, 가사를 붙여,
2일동안 함께 모여 연습하였죠.

눈물을 글썽이며 부르던 곡의 가사,
그리고 오늘 올라 중 한 사람이 스피치 주제로
선포한 말씀, 그 의미는 바로,
“우리를 보내신 그 곳에서 빛이 되자,
그 곳에서 소금이 되자. 우리 다시 보내신 곳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힘써 주님을 드러내자.”
모든 올라를 함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고등학생들처럼 웃고 웃고 웃던 연습시간,
그 시간이 모든 올라들에게 강함이 되고
주님의 위로이길 기도합니다.

함께 축복해주세요!
얌농아이레! Yam nung aire!
(Thank you의 마니푸르버전)

마치, 주님께서 제자삼으시고,
그 제자들을 선교보내신 것과 같이.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함같이.
파롱마을 교회는 타지역 청년들의 신부가 되어 떠나간
올라들을 파송한 것이고,
그들은 사명을 다해 새롭게 섬기는
그들의 가정을 사역하는 엄중한 마음가짐 이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

이번 인도 여행에서 가장 막중한 임무는
[아이린과의 재회]였습니다.
저와 7년이 넘는 시간동안 함께
사업과 사역을 논하던 나의 귀한 친구, 아이린.

마니푸르라는 낯선 지역을 여행했던 이유,
마니푸르라는 안타까운 땅을 마음에 품은 이유,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되고,
새로운 소망과 은혜를 함께 품을 이유가 된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아이린.

그녀가 지나온 고된 삶의 여정을 더욱 깊이 알게되고
지금 지나가는 시절을 피부로 느끼며
함께 주님께 울부짖게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제목으로 한 가지 나누자면,
아이린의 남편이자, 늘 함께 사역-사업을 논하던
브리지가
(조심스레 고합니다.)
최근 3, 4개월 동안
알콜중독의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보드카를 마시고 있는데,
단순히 즐기기 위함 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는 친구이고, 주님을 알고 교제하는 친구입니다.
함께 브리지를 위해 중보 부탁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본인에게 과중되는
가족 안의 여러 스트레스와 기대감이 많이
무거운 듯 합니다. 혹여 다른 이유가 있다면
드러나게 하시고, 서로 부둥켜안고
용서하고, 용서를 빌도록,
서로를 향한 회개가 일어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지켜보는 아이린의 마음에
오직 주님만이 반석되셔서
흔들리지 않는 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잠잠히 옆을 지킬 수 있는
견디는 힘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Ukhrul, 우크를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Lummi, 루미 목사를 통해
Oasis_young_point Church, 오아시스 교회라는
젊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를 지역은 특별히 제게 마음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들은 찬양으로 뛰어놀고 사단을 짓밟으며
영으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두 교회 모두
사업(레스토랑 사업)과 예배를
겸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사람들이 편히 드나들도록 카페와 레스토랑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제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후
오아시스 교회는 이제,
카페 사업은 그만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과 1주일 전, 1월 말 경의 결정입니다.)
재정 난관의 이유가 가장 큰 마주함 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먹이시는대로 흐르기로 작정하였고
교제는 간혹 야시장”과 같은 개념으로
야외에 팝업카페, 레스토랑을 열어
예수님이 필요한 청년들과 교제하기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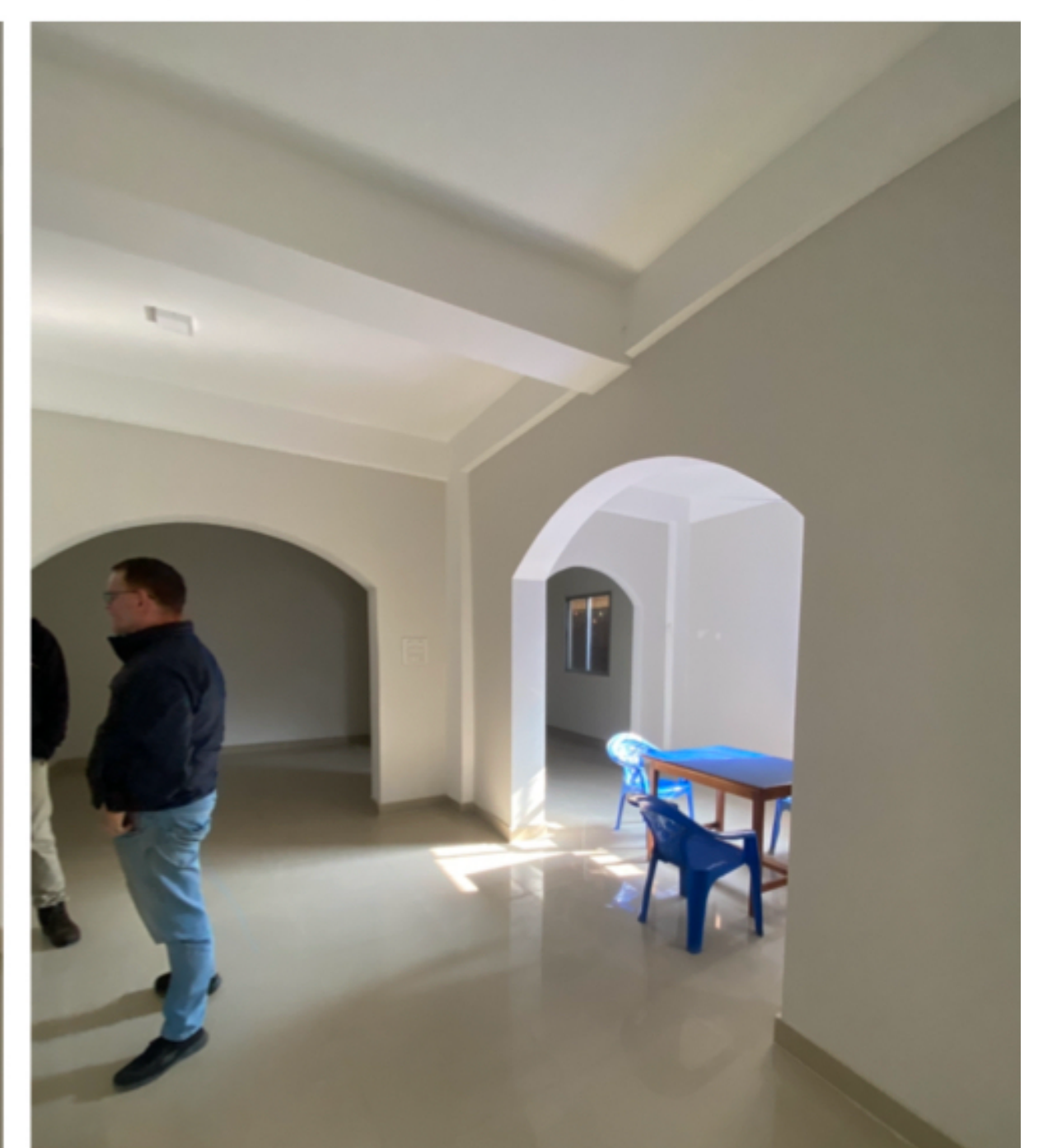


루미목사(좌), 지윤, 아이린(우)



카페폐업 결정을 내리기 전, 2주간 열린 팝업레스토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숙연함과 배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떨림은 주님을 경외하는데에만
사용하기로 합니다!
마니푸르에서 기가 막힌 장소, 제 앞에 주셨습니다.





마니푸르 국기(위)
브리지(좌), 지윤, 아이린(우)

마니푸르 국기를 처음 보았습니다.
마니푸르는 인도영에 속한
마치 티벳이나 홍콩과 같은
나라입니다.
독립을 원하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인도본토(Main land)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여
자체 소수민족들과 더불어,
아니 부딪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기독교보급율 80-90%지역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도 그렇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행을 통해 그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토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MeiTei, 메이테이족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힌두교인입니다.
기독교 90%인 땅굴, 곶 족도 다수를 차지하지만,
마니푸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로 보자면
메이테이족이 더 많았습니다.

땅을 빼앗기고, 왕정을 빼앗기고,
이제는 조금은 잠잠한 그들.
자체 군사시설을 설립하고 내전이 일고 있다는
뉴스 보도와는 조금 상이한 모습입니다.
마치, 전쟁중인 대한민국, 밖에서 보면 위험한 나라”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이겠지요.



뉴시티교회, 임팔.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만났습니다.
New City Church, Delhi의 브런치로,
벵갈로, 델리에서 사역하던 목사님, Dobu가
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마니푸르에는
각 민족별 교회가 있지만, 거의 천주교예배와 같이
형식과 틀에 치중된 교회들입니다.
Dobu는 마니푸르에 다양한 소수민족이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영어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오픈 스튜디오를 열기에 너무너무너무
적! 격! 그 자체인 공간입니다.
인도에, 아니 마니푸르에 이런 실내구성의 공간을
어떤이가 만들었는지, 참으로
딱 [d o d project]의 플랜과 똑 맞아 떨어집니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설레임이란... 아~
(문짝까지 맘에 든다는... ㅎㅎ)

그래서, 짧은 지윤생각으로...
한국에 돌아가면 모든 것이 인도로 다시 나갈 준비가
똑!똑! 되어있으리라 생각했답니다.
한 6개월 정도 잡고 인도로 다시 날아가 셋팅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설레임을 안고 한국에 왔는데...
~~~~~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묵묵하고 기쁘길,  
그리고 최선을 다하길 다시 요구하십니다.

“주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배짱과 패기로 지금 당장 들어가고 싶지만,

“지윤아, 방법을 알려주면  
방법이 너의 반석이 된단다.  
그저 나를 반석 삼아  
[방법]이 아닌, [나]와 손을 잡고 걸을 수 있겠니?”

주님께 모든 방법과 길을 의탁하며  
더 더 더 내공을 쌓습니다.  
길을 보여달라 때쓰기 보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 손을 붙들고  
신뢰와 평안으로 일상을 걸어가는 것이  
지금 제게 주어진 New Day, New Season 이네용..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남들이 보기 미친 것 같은 여리고성 정복처럼,  
무기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춤추며 여리고성을 도는 것.

“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느헤미아 8장 10(2)절  
”

꿈같은 12, 1월을 보내고  
이제는 다시 태성상회와 더비엔알에서  
짠 맛을 톡톡히 내는 소금이자  
태성상회를 세상에 알리는 빛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가볍게 인도에서 받은 축복도 함께 나눕니다.

## 쿠시부와 재회하고



## 새로운 리더십, 피터와 제인, 샘신과도 교제하고



퓨전교회에서 축복받고  
델리바이블펠로우교회에서 함께 뛰고 교제하고,



리버럴 대학에서 교수들에게 디자인 강의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 인도 루피 처음 벌어봤어요!!”



멋드러지는  
지희목사님의  
프로페셔널,  
힐링 클리닉에 다녀오는  
넘치게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제목 나눕니다.

## 정지윤선교사 기도제목

1. 2023년 올해의 성품목표, 동일함 Consistant”입니다.  
제가 가진 기질 상으로는 그냥은 불가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정, 언행, 생각의 진폭과 기복을 줄이고,  
성령님 주신 생각, 첫 생각으로 꾸준할 것을  
제것으로 섭렵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2. [주님=반식] 공식을 삶으로 살아내는 예민함으로  
때와 방법을 놓치지 않고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3. 태성상회, 2월 10-12, 17-19일 전시일정 있습니다.  
최선으로 준비하고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어 놓도록  
능력, 지혜, 견디고 버팀 기도하여 주십시오.
4. 함께 사는 축복 주신 수지 터전, (주연, 찬영, 지윤)  
이곳이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통로가 되길  
기도해 주십시오.
5. 인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길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동역하는 교회 세워 주시고, 사업의 감당자들이  
함께 기대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길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사랑의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그 발걸음을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중보자님들의 평안, 샬롬.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FEB 4, 2023  
정지윤 올림.

